

다산포럼

너무 튼튼한 한국 정치의 위장(胃腸)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이번이 속출했던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미국은 양당 체제가 굳건한 나라지만, 내내 정당정치외의 외부자였던 트럼프가 마침내 공화당 후보 티켓을 거머쥔 데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은 미미하다. 단순화를 무릅쓰다면 미국정치에서 정당은 그저 선거철에 반짝 빛을 발하는 조직이다. 권력과 정책 과정은 연방의원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어서, 가령 상하의원 한 사람이 인구 비례에 따라 거느리는 보좌관의 수는 각각 최대 70여 명과 20여 명에 이른다. (한국 국회의원의 일인당 보좌관 수는 6명 이하지만 그마저 이리저리 동원돼 막상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훨씬 적을 것이다) 정치인 개인이 지닌 막강한 정책 능력은 이익집단들의 전방위적 로비로 인해 주요 정책이 곳곳에서 비도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초당적 교차투표가 빈번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

원내각제가 주를 이루는 서유럽 정치의 풍경은 많이 다르다. 정책 형성의 중심에는 정당이 있어서 정당별 정책·이념적 결속 또한 상대적으로 강고하다. 정책과정은 당 지도부에 집중돼 있고, 대체로(주요 정책 사안일수록) 당 노선은 개별 정치인 행태를 구속한다. 정치적 출세를 노리는 평의원들은 오랜 기간 인변과 정책 능력을 당내에서 검증받은 후에도 지도부에 진입하거나 발탁된다. 최근 영국의 EU 탈퇴 레퍼런드를 앞둔 집권 보수당 내부는 그래서 특기할 만하다. 노동당의 EU 잔류 당론이 비교적 견고한 데 비해 보수당은 잔류를 원하는 지도부 노선에 대한 평의원들의 대대적인 반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정당이든, 이들 나라 정치인들의 행태가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다는 점이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에 기댄 진영이나 파벌이란 것도 세계관이나 정책 지향에 흡사한 정치인들의 느슨한 연대를 지칭한다. 가령 영국 정치에서 배반 주의자(Bevanites), 대처 지지자(Thatcherites), 블레이 추종자(Blairites)는 차례로 전통적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의 정책 노선에 동의하는 이들을 거는 말이다. 이때 이념·정책 형성의 배후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각별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그들의 정치 참여는 직접적이기보다 연구, 자문, 출판, 세미나, 시민운동 등을 통한 줄

기찬 발언을 거쳐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국 정치 균열 양상이 사적인 친소와 선거 승리를 위한 파당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정책 역량과 관련해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선거) 여왕도 되고 최고 권력자로 등극해도, 정치적 양지만을 걸었던 이가 하루아침에 큰소리치며 야당 대표로 변신해도, 야당 정치를 타파하자며 출범한 소위 제3당이 기존 정당과 어떤 이념·정책적 차별성을 지녔는지 도무지 요령부득이어도, 한국 정치는 견제하다. 페피스토펠레스의 말을 패러디한다면, 과연 “한국 정치(원래는 교회)의 위장은 튼튼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도 끄떡없는” 것이다. 이 땅의 많은 지식인이 권력의 후광을 빛내는 장식적 역할을 자임해 온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갈고 닦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정치 일선에 뛰어들 필요는 없을 터인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기어이 벼슬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결과는? 저마다 출사의 변은 거창할지언정 변변히 소리 없는 불명에 퇴진할 하기 일쑤다. 파우스트의 일탈은 인식적 탐구를 끝까지 밀어붙인 후 도달한 절망적 탄식과 더불어 왔다. (“아아, 철학·법학·의학 심지어 신학까지 전력을 다해 파고들었지만~이 기껏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만을 깨닫다니!”) 신에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

항하는' 별수 없는 존재지만, 페피스토펠레스는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푸르른 것은 인생의 황금나뭇’이라는 너스레로 지식인의 좌절과 욕망을 부추긴다. 과연 한국 정치의 소화력은 대단해서, 지식인들은 절망을 거칠 거름도 없이 지레 욕망으로 직행하고는, 현실 정치의 일에 빠져 허우적대다 양실(兩失)하는 일이 허다하다. 베르나르 앙리 레비는 지식인이라 “우리는 지식인이다”라고 외치는 자이며 그런 외침에는 불손하고 무례한 도전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자유의 모험). 계몽시대를 거치며 정치에 직접 참여했던 지식인들(가령 V.위고나 J. 밀)이 정치인으로서 기여한 바 없지 않았으나 후세는 그들의 이름을 문인이나 사상가로만 기억한다는 것을 곰곰 새길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치인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축적하는 일일 것이다. 최근 정치판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 초년생들을 향해 “가능하면 하루 세 끼를 모두 기자와 함께하라”며 선배로서 지혜를 들려줬다는 기사가 있었다. 한국 정치를 떠올리면 이것이 필시 따끈따끈한 당선의 기쁨에 겨워 나는 농담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현상과 한국 정치의 현실이 묘하게 겹쳐진다. 정책 보좌진도, 정당의 정책 기능도 변변찮은 마당에, 이 나라 정치인들이여, 밥도 좋지만 제발 국회 도서관에서 혼자 시간 좀 보내시라.

정춘 특·특



김 가 희  
조선대 경제학과 3학년

침밀밀, 청춘의 달콤한 삶

간 사람이 시작된다. 사실, 내 또래 중 이 영화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소군이 이교를 자전거에 태우고 ‘캔던 로드’ 일대를 달리며 불렀던 등려군의 노래 침밀밀은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침밀밀은 ‘꿀처럼 달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노래는 달콤하다. 그러나 영화 속 두 청춘의 삶과 사랑은 텅텅하고 씁쓸하기만 하다. 당시 홍콩의 사회상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일까? 속껍질을 벗기지 않은 밤 한 톨을 씹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은 달기만 했다. 고향을 떠나 동병상련 서로를 의지하며 억척같이 일하던 둘은 곧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이교는 늘 여소군에게 냉정하게 말한다. “우리 좋은 친구지? 나와 고생도 함께 하고 나를 즐겁게도 해주고, 사실 난 홍콩에서 제일 친한 친구야.”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관계를 ‘친구’라는 말로 외면하기 위해 끊임없이 묻는 이교. 홍콩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랑조차 할 수 없는 청춘. 고향에 두고 온 약혼녀에 죄책감을 느끼던 여소군에게 그녀는 결국 이별은 통보한다. “여소군 동지, 내가 홍콩에 온 목적은

네가 아니야. 내가 홍콩에 온 목적도 나 때문이 아니야.” 과연, 그들만의 얘기일까? 청춘들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과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저 멀리 호주나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대학생들,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영화는 오래전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현실에 남아 있다. 집 근처를 걷다가 무심코 ‘홍콩같다’라는 말을 뱉었던 적이 있다. 지난해 다녀온 홍콩의 ‘별빛이 속삭이는’ 밤거리를 돌아서가 아니다. 초고층 ‘빌딩 숲’이 늘어진 홍콩은 퇴근시간이면 삶에 피곤 수 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화려한 ‘내은산인’ 뒤에 감춰진 홍콩의 이면이 보였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도 다를 바 없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뻘뻘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억척같이 살고 있는, 햇볕도 들지 않는 좁디좁은 고시원이나 외로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얼굴이 그려졌다. 포기할 게 너무도 많은 청춘의 삶은 1986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우리 애겐 ‘N포세대’라는 꼬리표도 붙었다. 연

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넘어 희망과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뜻이다. “교사를 만났어?”, “공무원을 잡았어?”, “집은, 차는 있어?”라며 남의 일에 끼어드는 어른들도 참 많다. 결혼을 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구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히 누군가에게 좋아한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돼 버렸다.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찾아 연인을 떠나는 것도, 떠나는 연인을 보내줘야 하는 ‘스토리’는 아직도 익숙하다. 포기가 익숙한 청춘들은 깊은 체념과 만성적인 분노만이 남았다. 영화 말미 여소군과 이교는 뉴욕의 한 길거리에서 등려군의 사랑 소식을 전하는 전자제품 상가의 TV를 보다가 우연히 만난다. 영화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결국 잘나가는 사채업자를 만나 고향에 집을 지은 이교, 약혼녀와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여소군. 이 둘은 자신들이 말하던 꿈을 이뤘음에도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 나와 내 친구들, 이 시대 청춘들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사랑조차 포기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걸까? 나를 ‘취하게’ 만든 영화, ‘침밀밀’의 취기가 아직도 가시질 않는다.

기 고



최 우 식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

법에 보장된 권리 제대로 누리자

1항제41호). 과거에는 미국으로 여겨지던 남녀 간의 구애가 스톡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가 변하면 법도 변한다.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오히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상위의 법인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4559개의 국가법령과 9만 4097개의 자치법규가 있다. 새로운 법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도 그 중 하나다. 적용 대상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언론인 등 300만명에 이르는 이 법률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유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 법정 제정 시 다소간의 논란은 있었으나 청렴사회를 만드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민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의 제도적 장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전남도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문의전화 : 061-286-2623)’과 대면상담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사이버 법률상담’(http://law.jeonnam.go.kr/)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법률상담을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다. 또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행

정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구제받는 길이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서 규정된 행정규제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자율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제개혁활동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국민의 안녕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해 나가자. 나와 가족 모두가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가치관을 갖추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고, 신호지킴이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등 조그마한 것처럼 보이는 준법정신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법률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꾸준히 법률상식을 쌓는 습관을 기르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흑시나 했더니 역시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인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두가 함께 부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보훈처가 행사를 이들 앞둔 어제 기념곡 지정은 물론 현행 합창에서 제창 방식으로의 변경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이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야당은 정부를 맹비난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연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렵사리 공감대를 형성한 ‘협치’(協治)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요인이라며 제창 불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야당은 또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국회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재고를 요청했지만 보훈처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역시 회동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고심을 거듭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화 테이블에 마지못해 앉긴 했지만 아직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결국 이 노래를 금지시키는 보수 진영 눈치를 살피느라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호남인들은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예전과는 후근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흑시나’ 했던 것인데 결과는 ‘역시나’였다. 고 정권년의 높은 벽을 재삼 확인하면서 허탈감만 커질 뿐이다. 5·18 36주년 기념식까지 딱 하루 남았다. 청와대의 좌고우면이 계속되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 국민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여야 협력으로 난국을 타개하려면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누구 말처럼 종말세를 새장 속에 가둘 수는 있지만 새의 노랫소리마저도 가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해남군수 3대째 중도하차 어쩌다 이런 일이

각종 비리로 인해 해남군수가 3대째 연이어 중도하차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박철환 해남군수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하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2007년 박희현, 2010년 김충식 군수에 이어 3대째 행정 공백 사태를 빚는 오명을 기록하게 됐다. 박 군수는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군청 발주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군수 전임인 김충식 전 군수 역시 지난 2010년 관내 공사를 수수하도록 도와주고 경관조명 업체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박희현 전 군수도 군청 직원 6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자치단체장이 도중 하차하거나 재판

에 넘겨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행정 공백으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야기하면 재보궐선거에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단체장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20년만 행사처벌로 물러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100명이 넘는다. 자치단체장에게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대형 사업의 인·허가권이 집중돼 있다 보니 청탁과 이런 개입 등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권한 남용은 기초단체일수록 더 심각하다. 단체장들이 각종 부청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권한 축소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단체장들이 선거 때 쓴 비용을 거둬들이기 위해 이런 개입에 나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b>無 等 鼓</b>	
<p>“가도 가도 붉은 황돛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신을 벗으면/ 버드나 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만 전라도 길.”</p> <p>한하운(1920~1975) 시인의 ‘전라도 길’은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인천에서 전안 삼거리를 거쳐 ‘작은 사슴섬’ 소록도까지 천리길을 걸어야 했다. 한센병을 앓고 있어 차를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학 시절 길거리에 떨어져 소록도병원 100년</p>	<p>년, 조선총독부는 전국 각지를 답사해 ‘섬이라는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격리되면서, 기후가 온화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이 많으며, 육지와 가까이 물자를 나르기가 쉽다’는 점을 들어 소록도를 적지로 선정, 한센병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병원을 세웠다. 일제강점기 이곳에 격리 수용된 한센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감금실과 검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감제로 단종(斷種) 수술과 낙태가 시행됐다. 또 1962년 7월부터 오마도 간척 사업에 투입됐으나 새 낙도건설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창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그 당시의 정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국립 소록도 병원이 17일 개원 100주년을 맞는다. 한센인의 생활 유품 등을 전시하는 한센병 박물관도 문을 연다. 기념식에는 40여 년간 소록도 한센인적 의료 활동을 펼쳐 ‘나환자의 아버지’로 불렸다. 이때 음성환자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있었다.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립된 때는 1916</p> <p style="text-align: right;">/송기동 문화2부장 song@</p>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 · 220-0551</b>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b>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